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엄광진, 김정유
송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Qualitative Study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entally Ill Patients in Psychiatric Day Hospital Care

Kwang-Jin Eom, Jung-Yoo Kim

Researcher, Dept. of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와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 5명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낮병원 이용과 외래 진료 이후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진을 활용한 반 구조화된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직업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함',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안정감을 얻음',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낮병원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환자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낮병원, 직업재활, 정신과 환자, 질적 연구, 포토보이스

Abstract This study used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and G-PhotoVoice methods to study the experience of psychiatric patients participating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in daytime hospitals. The researcher in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more than two times with five patients who took part in the program and data was also collected from additional conversations while patients were admitted or on outpatient visit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day hospital. In addition, semi-structured group interview with photos was also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day hospital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vocational activities," "joying working together," "getting a sense of stability," and "feeling that they have grown."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activa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daytime hospitals and promoting the growth of psychiatric patients.

Key Words Psychiatric day hospital, Vocational rehabilitation, Mentally ill patients, Qualitative research, Photovoice

Received 03 Oct 2023 Revised 15 Oct 2023

Accepted 19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Jung-Yoo Kim
(Soongsil University)

Email: corea-yes@nate.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직업 활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주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1]. 또한, 직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한다[2,3]. 직업이 주는 이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4].

그러나 국내 고용시장은 취업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 포기자는 62만 명에 이르고 실업률은 3.7%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5].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잦은 발병과 증상의 악화로 취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이에 더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소외감과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10,11].

정신장애인들은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취업 후에도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와 대인관계의 문제가 직업 유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따라서,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취업지원과 취업 이후 직업을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2].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지원책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도 하나의 의미 있는 기회제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 경험과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질 증진과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한 기술 습득과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4,13,14].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며 사회활동을 하면 사회적 낙인이 감소하고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는[5]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동이 그들의 치료와 사회 재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근거자료이자 지표

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가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진행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15,16].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이 갖는 의미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 낮병원에서 조차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수의 정신과 낮병원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낮병원의 환경적인 특성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년 이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된 낮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깊이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직업재활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일반적 질적 연구

정신과 낮병원 환자들의 직업재활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은 해석 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질적 연구의 접근 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하나의 특정한 방법론을 선택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분석과 해석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드러내는 연구방법이다[17,18].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면담을 통한 주제를 분석하여 낮병원 직업재활 참여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방법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포토보이스 방식이 자신이 선택한 사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 방식은 연구 참여자가 사진의 의미를 여

러 명의 연구 참여자와 같이 공유해 나가며 집단이 함께 편하게 느낌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경험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진행된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추가로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정신과 낮병원은 오전 10시에 일과를 시작하고 오후 4시에 마무리하는 입원 병동과는 다른 부분 입원형태로 정신과 환자의 사회 재활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능력과 작업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부업업체와 협약을 통해 외주 형식으로 정기적인 일감을 확보하여 환자들과 공동작업 형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낮병원 직업재활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많고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지역 B낮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들로 남자 3명, 여성 2명으로 총 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낮병원에 3년 이상 다닌 환자로서 2년 이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익명의 보장과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seudonym	Gender	Disease
Electric wire	Female	Schizophrenia
Rabbit	Female	Schizophrenia
Black Hole	Male	Schizophrenia
Union	Male	Schizophrenia
Hope	Male	Schizophrenia

연구 참여자의 가명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당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잘했던 작업이나 희망하는 단어들로 가

명을 선정하였다.

‘Electric wire’는 현재 낮병원 퇴소 이후 정신과 외래를 다니며 파트타임으로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월급을 받으면 외래진료를 받고 낮병원에 와서 다른 환자들에게 간식을 사다주기도 하며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Rabbit’은 현재 낮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낮병원 퇴소 이후 사무지원 관련 업무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취업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현재는 부모님이 낮병원을 잘 다니는 것에 만족해서 마음의 부담은 없으나 앞으로 취업을 해보고 싶다고 구직활동에 의욕을 나타냈다.

‘Black Hole’은 현재 낮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전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나 제대로 배포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 낮병원 퇴근 이후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길 원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ion’은 현재 낮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과거 고등학교 중퇴 이후 공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잠시 했으나 업무능력 저하로 입사와 해고를 반복하다가 취업을 포기했다. 이후 형이 하는 사업장에서 형의 일을 도와주며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형과의 갈등으로 중단하였다.

‘Hope’는 현재 낮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과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그러나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조현병이 발병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이후 구직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입 퇴원과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며 생활하였다. 낮병원을 다니고 있는 지금도 자신의 나이에 대한 문제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환경을 고려하여 직업이나 구직활동에 욕구가 있지는 않다.

2.3 연구 참여자들과의 만남

연구 참여자들과 만남은 2023년 5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만남을 통한 자료 수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면담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상담실이나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인근 카페에서 2회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 질문은 개방 질문

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연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낮병원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시로 나누며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면담을 통해 녹취한 내용을 전사하고 낮병원 일과 중에 수시로 대화를 나눈 기록을 취합하여 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재활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을 코딩하였다. 이를 개별 메모로 나누어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비슷한 경험들이 공통으로 드러나게 범주화하였다. 코딩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원자료를 통한 비교와 확인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점검하였다.

둘째, 집단을 중심으로 한 포토보이스(G-Photovoice)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5명이 모여 87장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활동사진을 공유하고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사진을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정하였다. 각자 선택한 사진에 대한 사진의 의미를 발표하고 발표한 사진에 대해 집단이 함께 편하게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은 전형적인 느낌을 나누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면담에 가까운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룹 포토보이스(G-Photovoice)의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선택한 사진들을 통해 나눈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진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1차 작성 이후 연구 참여자들과 작성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성하였다.

2.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문과 검토과정을 거쳤다. 첫째,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2인과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는 연구 참여자들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한 담당자들과 연구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검토해나갔다.

더불어, 직업재활 프로그램 과정에서 함께한 다른 직원들과 연구를 공유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연구자들의 주관적 오류를 줄여나가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낮병원 직업재활의 경험 이야기

3.1 면담을 통한 주제 분석

(Table 2) Analysis Result: Subjects and Subtopics

Subjects	Sub topic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Working	losing confidence and being frustrated
	Going through difficulties due to greed and burden
Joy of Working Together with Others	Gaining strength through supports and consideration from peers
	Closer relations and conversations with peers
Finding Stabilities	Lessening family conflicts
	Feeling relaxed by doing simple and repetitive tasks
Feeling of Self Improvement	Feeling sense of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Contributing to society

3.2 작업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함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유지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기간이 길지 않고 사회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신과 낮병원에서 진행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직업 유지 경험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초기에 부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감이 저하되고 좌절함’, ‘욕심과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 나타났다.

3.2.1 자신감이 저하되고 좌절함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저하되고 좌절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직업재활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작업한 만큼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화장품 거울 붙이기 작업을 할 때 자꾸 실수를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송00 회원이 여자가 왜 화장품 거울을 못 붙이냐고 웃으며 이야기했을 때는 작업을 그만해야 하나…….” -Rabbit-

“볼펜 뚜껑 끼우기 작업할 때 뚜껑 방향을 반대로 끼워서…….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고 고생하시 거 보고……. 미안해서 며칠 못 나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들 괜찮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창피하던지…….” -Hope-

“학교 다닐 때 가난하고 공부 못한다고 놀림을 받고 자주 실수를 했어요. 똑같은 옷만 자주 입고 온다고 애들이 놀리고……. 동네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짧다고 괴롭히고……. 작업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났어요. 쉬운 작업이라고 해도 자주 실수하고 불량이 나오니까 실수를 잘하는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Black Hole-

3.2.2 욕심과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겪음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한정된 물량을 공동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부업 특성상 할당되는 물량의 마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 부족으로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일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손이 빠르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시니 더 잘해야겠다 싶고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 선생님도 오셔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다고 칭찬해주시니까 더 부담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Electric wire-

“업체랑 물량 마감은 약속인데 열심히 해서 무사히 끝내야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이었죠. 하청에 하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이00 회원과 박00 회원도 바쁠 때는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안 할 때는 참…….” -Hope-

“부품 끼우기 작업을 할 때 작업 물량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보시더니 작업 왕이라고 하니까 계속 1등을 하고 싶고 욕심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저보다 많이 하면 괜히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Union-

“집에서 작업해서 받은 돈은 제 용돈으로 쓰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 빨리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싫었던 것 같아요. 낮병원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계속 작업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Black Hole-

3.3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낮병원 직업재활 활동은 부업으로 진행되어 다른 환자와 협력해서 함께 해나가야 몰랐던 마음의 제한을 깨고 해나갈 수 있다. 직업재활 참여를 통해 환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해나갔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동료들의 지지와 배려가 힘이 됨’, ‘동료들과 친밀해지고 대화가 늘어남’으로 나타났다.

3.3.1 동료들의 지지와 배려가 힘이 됨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활동을 하며 어려움을 느꼈지만,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의 지지와 배려를 받았고 그러한 경험들은 직업재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힘이 되었다.

“토끼 인형 옷 입히기를 할 때 남자 토끼 인형 바지 넣기가 잘 안돼서 고생했는데 안00 회원이 차근차근 요령을 가르쳐줬어요. 정말 못하겠다 싶었는데 안00 회원이 가르쳐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니까 해냈죠. 뭐…….나중에는 그 작업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했어요.” -Rabbit-

“쇼핑백 접기를 자주 틀려서 우울하게 있는데 송00 회원이 그것도 못 하나면서 웃으며 놀려서 정말 화가 났어요…….옆에 있는 박00 누나가 같이 잘해보자고 위로해줘서 꼭 참고 했어요. 송00 회원은 지금도 좋고 박00 누나는 지금도 고마워요.” -Black Hole-

“그…….볼펜 뚜껑 작업을 계속 틀려서 수정하느라 작업을 제대로 못 해서 작업 물량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 있던 김00 회원이 자기 작업한 물량을 내 작업 바구니에 부어서 나눠줬어요.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Hope-

“원래 좀 알뜰기는 했는데……. 안 가르쳐 줄까 하다가 송00 회원이 전선 작업을 못 하고 해매고 있으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고마워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Electric wire-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같이 하니 힘이 나고 좋았죠. 작업 물량을 마감해야 할 때 서로 열심히 잘해보자고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 힘도 나고.” -Union-

3.3.2 동료들과 친밀해지고 대화가 늘어남

낮병원에 환자들이 출근하면 이 작은 낮병원 집단에도 친한 그룹들이 서로 생기고 그룹 지어 활동했다. 환자들은 프로그램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친한 환자들과 주로 대화를 나누고 낮병원을 퇴근했다. 그러나 모든 낮병원 환자들이 함께 공동작업하는 직업재활 활동은 서로 평소 이야기하지 않았던 환자들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분전환을 하려고 미용실에서 가서 과마하고 온 일이 있는데 김00 회원이 저한테 사자 머리 같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김00 회원이랑 한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선 작업하면서 상자에 담은 전선이 목께가 나가서 옮기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데 김00 회원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감정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김00 회원이 저한테 사과하면서 사이가 풀렸던 것 같아요.” -Electric wire-

“코릴 작업인가 코렐인가 2명이 한 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할 때 박00 회원이랑 작업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원래 안 친했는데 작업하면서 담배 몇 번 같이 피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제는 집에도 놀러 가고……. -Union-

“채00 회원 옆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공동작업할 때는 같이 짝을 지어서 일도 하고요. 옆에서 같이 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Rabbit-

3.4 안정감을 얻음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증상과 경제적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자주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마음이 편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과 갈등이 줄어들’, ‘단순 반복 업무로 마음이 편해짐’으로 나타났다.

3.4.1 가족과 갈등이 줄어듦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직업재활 활동을 통해 가족과 갈등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

의 가족 지지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의 증상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 원인이 되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못하고 맨날 따돌림당 당해서 그런지 엄마는 제가 뭘 해도 잘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낮병원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작업비 봉투를 보여드리니 일도 하나며 엄마도 좋아하시고…….” -Black Hole-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형님도 앞으로 맨날 놀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잔소리를 많이 했죠. 계속 놀러만 다니면 병이 더 나빠지지만 하니까 차라리 자기 일이나 도우라며 낮병원 다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작업비를 받아서 어머니와 형님한테 양말이랑 장갑을 사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낮병원 다니는 거 잔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Union-

“전선 작업해서 15만 원 넘게 작업비를 벌어가니까 엄마가 놀라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하겠다며 칭찬하셨어요.” -Electric wire-

3.4.2 단순 반복 업무로 마음이 편해짐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재활 활동으로 작업했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쉽고 단순한 일은 환자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주었고 증상의 안정을 경험하게 하였다.

“거울 붙이기 작업은……. 이상하게 계속 실수를 했는데 그 작업 빼고는 작업 자체가 힘들지 않고 쉬웠어요.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Rabbit-

“일부러 복지사님들이 어렵지 않은 작업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업 자체가 어렵지 않았고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작업했어요. 저기 그리고 대통령이 저를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든지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도 사라지는 것 같고…….” -Union-

“음악을 들으며 구멍 뚫기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Hope-

3.4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다. 직업재활 활동은 환자들에게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고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함', '사회에 기여함'으로 나타났다.

3.5.1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함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작업 물량이 많고 시간이 촉박할 때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직업재활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힘든 과정과 성공 경험은 그들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제공하였다.

“낮병원에서 직업재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보다 싶었어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작업비를 받을 때도 뿌듯하고. 직접 돈을 벌어서 적은 처음이라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Rabbit-

“물량을 못 하거나 불량이 심해서 작업이 끊어지면 어찌나 걱정했어요. 김00 회원이랑 송00 회원이 안 나온 날 작업 물량을 다 못할 거 같아서 걱정했는데 점심밥 먹고 쉬지도 않고 다들 같이 작업해서 끝냈을 때 기분이 참 좋았죠.” -Union-

“작업해서 번 돈은 엄마가 다 알아서 쓰라고 해서 작업비를 받은 날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과자를 샀어요. 집에 와서 먹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벌고 싶어요.” -Black Hole-

“전선 작업이 공동작업을 하다가 불량이 많아서 나중에는 저 혼자 전선 작업을 했는데 익숙해져서 작업비가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15만 원도 벌고……. 힘들었지만, 그때 해냈다는 성공 경험들이 지금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Electric wire-

3.5.2 사회에 기여함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활동을 하면서 정신과 환자로 순응하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다.

“조카가 콩지레빳을 좋아하는데 콩지레빳 머리리본 달기랑 옷 입히기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아기가 콩지레빳을 가지고 노는 걸 보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저번에 아빠랑 이마트를 갔는데 장난감 판매대에 콩지레빳 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싶고.” -Rabbit-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감사하죠. 작업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담뱃값도 별로 즐거웠던 것 같아요.” -Hope-

4.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분석

'Electric wire'는 전선작업이 담겨 있는 사진을 선택하였다. 낮병원 직업재활 과정에서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작업은 'Electric wire'에게 성취감을 주었다. 갈등 관계에 있던 김00 환자와의 갈등 관계도 해소되어 사진이 의미는 '성공을 경험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Fig. 1] Experiencing the accomplishment

“15만 원이라는 큰돈을 스스로 벌어서 본 적도 처음이고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김00 회원이랑 나중에는 사이도 다시 좋아져서 편했고요. 이때 잘 이겨내서 작업했던 성공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Electric wire-

“같이 하다가 혼자 자리 잡고 작업하고 있어서 'Electric

wire' 언니만 특별대우 받는 것 같고 속상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부러워요.” -Rabbit-

“저건 감이 있어야 하지 정말 아무나 못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 금액이 적었는데 아무래도 저건 쉽지 않았던 일이나가……. ‘Electric wire’가 워낙 성실히 하기도 했고 저도 저런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아쉽죠.” -Hope-

‘Union’은 ‘Electric wire’의 발표와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한 장을 집어서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사진의 의미는 자신은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Fig. 2] Learning How to Give Up

“저는 제가 작업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작업을 더 잘하는 게 싫었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원래 저는 걸 싫어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Electric wire’가 혼자 작업하는 거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복지사님이 업체에 여러 번 데려가서 작업방법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잘 안되고……. 근데 저걸 못하더라도 다른 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Electric wire’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나중에는 응원하게 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Union-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들 응원해 준 거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Electric wire-

연구 참여자들은 ‘Electric wire’에 대해 초기에는 시기를 느꼈지만 ‘Electric wire’의 성실함을 보며 긍정적 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 ‘Electric wire’을 지지하였다.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공 경험과 실패경험을 주었고 이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Black Hole’은 ‘Union’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한 장 집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Black Hole’은 ‘Union’이 가장 잘했던 작업 사진을 선택하고 ‘Union’을 응원했다. 이 사진의 의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Fig. 3] What I Do Best

“‘Union’ 형은 전선 작업은 못 했다더라도 조립하고 끼우기 작업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작업하고 물량이 쌓여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Black Hole-

“난 저 작업하다가 누르는 기계에 손이 끼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Hope-

“그래도 ‘Union’씨는 같이 다른 회원들이랑 일해서 저런 추억이라도 있는데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같이 한 추억은 많이 없잖아요.” -Electric wire-

“저 작업은 내가 제일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런 거라도 잘했으니까 다행이지…….(웃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서 좋았죠.” -Union-

‘Hope’는 사진을 두 장 집으면서 자신은 욕심이 많아

서 두 장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Hope'는 자신이 힘들었던 작업의 사진과 마음이 편했던 사진을 고르며 사진의 의미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구멍 뚫기 작업은 제가 제일 빠르고 잘했던 작업이네요. 저는 천국 같은 느낌은 없었고 그 작업을 하면 돈을 제가 가장 잘 버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Black Hole-



[Fig. 4] Heaven and Hell

“볼펜 뚜껑 작업은 방향을 계속 잘못 끼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피해를 준 거 생각하면 낫병원을 그만 다니고 싶었어요. 복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동료들도 도와주고 지지해줘서 잘 이겨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어쩌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던지…….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그 작업 이후로 구멍 뚫기 작업을 했는데 개당 0.5원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Hope-

“개당 0.5원이면 금액이 엄청나게 짜네요.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가요. 0.5 원짜리 작업할 때는 저한테 알미운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Electric wire-

“볼펜 뚜껑 작업은 실수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작업이었는데 'Hope'형님이 계속 실수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랑 같이 작업해주시는 모습이 저는 멋있게 느껴졌어요. 형님이 마음고생을 그렇게까지 하신지는 몰랐네요.” -Union-

'Rabbit'은 연구 참여자들의 대화를 차분히 듣다가 사진을 선택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Rabbit'은 토끼 옷 입

히기 작업 사진을 선택했다. 토끼 옷 입히기 작업이 힘들어 포기하려 했으나 안OO 회원의 도움과 지지로 다시 시작하고 옷 입히기 작업을 나중에는 가장 잘하게 되어 의미 있음을 이야기하고 사진의 의미를 '한 번 더 도전하는 힘'이라고 표현했다.



[Fig. 5] Strength to Face Challenges One More Time

“'Union'씨는 작업 활동을 하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지만 저는 'Union'씨랑 반대로 항상 포기가 빠른 편이었어요. 하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역시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를 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번에 인형 옷 입히기 작업을 하면서 배운 건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는 힘을 키워준 것 같아요.” -Rabbit-

“인형이 너무 예뻐요. 저도 낫병원에서 작업하면서 끈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Rabbit' 이야기가 공감 가네요.” -Electric wire-

“잘 안된다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큰일이죠. 좋은 이야기네요.” -Union-

“'Rabbit' 누나 근데 저 사진에 나오는 손은 제 손인데요. 누나 작업하는 사진은 안 고르고 왜 제 손 나오는 사진을(웃음)…….예전에 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제대로 못 해서 돈도 못 받고 쫓겨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못해서 그만두라고 해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Black Hole-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 방식으로 직업재활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진술하고 편안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연구자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석하며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험 의미를 되새겼다. 본 연구에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직업재활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직업재활 경험의 의미는 ‘작업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함’,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안정감을 얻음’,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낌’으로 나타났다. 낮병원 직업재활 경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직업재활 경험은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부담감은 작업과정에서 불량과 실수로 이어졌고 자신감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초기 적응을 잘해나가고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할 수 있게 참여자의 개별 상담과 더불어 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작업지도가 제공해야 한다.

둘째, 초기 적응기를 거쳐 참여자들은 낮병원 동료 환자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해나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빈번할 시기에 발병하였다. 정상적인 직업 활동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지지해 나가는 과정은 참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따라서 정신과 환자들이 직업재활 활동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어울리며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조 모임 활성화를 제안한다.

셋째,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단순 반복 작업 활동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증상 완화와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참여 과정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활동과정에서 얻은 작업비용을 가족들에게 감

사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와 가족들의 갈등 해소와 관계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경험들은 정신과 환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재활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과 참여자들의 역량에 맞는 직업재활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성공적인 직업재활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참여자들은 직업재활 과정에서 성장하고 본인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성공 경험이 적고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해 온 정신과 환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취감을 경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함을 감사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성취감과 성장을 환자들이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직업탐색 기회제공이나 진로개발을 강화하고 직업재활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직업재활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집단 포토보이스(G-Photovoice)라는 질적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나타낸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낮병원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낮병원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낮병원에서 진행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낮병원 직업재활의 경험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보호 작업장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는 기관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신과 낮병원의 특색에 맞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낮병원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J. I. Kim. (2017). Study on the Predictors of the

- Job Maintenance among Workers with Cerebral palsy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2] J. H. Lee. (2009). A Study of Factors which Affect the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3] Y. J. Kim.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Maintenance for the Long term Employed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Focused on Yeongdeungpo Mental Rehabilitation Center.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4] M. Y. Yun. (2013).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trategy for Psychiatric Disabled. master's thesis. Namseoul University, Chungnam.
- [5] J. H. NA. (2020. 11. 11). “Those who don't want to be employed, 620,000 people”... October Unemployment Rate, Worst since 2000. Segye,
- [6] H, K. Chang & J. S. Ha. (2017). Work 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Recovery Paradigm :With a Focus on 'EM Practic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7, 153-192.
- [7] N. R. Lee. (2020). Storytelling and Youth Discourse of Documentary Based on Youth Employment: Focusing on <MBC specia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8] J. S. Kim.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for the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 [9] J. G. Kim. (2005). Qualitative Research on Job Satisfaction of the worker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10] M. H. Kim. (2000).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Person with Mental Disorder Adjusting Employment: The Case of the Oeoolegi Mental Rehabilitational Community Cente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1] K. J. Lee. (2007). (A) Study on the Employment Experience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like a Salmon Running Back in the River.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2] Y. M. Kim. (2020). Experience of Employment Maintenance among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Focused on Max van Manen's Interpretive Phenomenology.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13] S. C. Park. (2004). Th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 Disorder who Participate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In the Objective on the Mental Disorder in Jeonbuk..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Chonbuk.
- [14] S. J. Kim. (2005). A Study on The Operation of Work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Mentally Disabl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15] E. J. Jeong. (2011).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re-employment Programs for the Mentally Disabled from Rehabilitation Facilities.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16] J. E. Park. (2017). A Case Study of the Participation in a Psychiatric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Barista Training Program.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17] I. S. Kim. (2016). Quality Methods and Analysis in Social Welfare Research.. Seoul: Jipmoon.
- [18] K. J. Eom, J. Y. Kim & H. Y. Maeng. (2020). Qualitative study on burnout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in psych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289-296.

엄 광 진 (Eom, Kwang-Jin)



- 2022년 9월~현재: 숭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 2023년 9월~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2022년 8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정신건강복지, 의료사회복지
- E-Mail: suntime85@naver.com

김 정 유 (Kim, Jung-Yoo)



- 2022년 9월~현재: 숭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 2012년 3월~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2017년 9월~2022년 8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지역사회정신건강, 융합연구
- E-Mail: corea-yes@nate.com